

해남, 재정집행률 道 1위…‘일하는 군정’ 안착

64.9% 기록…지역경제 회복 선도적 역할 주기적 집행 대책 보고회 등 사업별 관리

해남군이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에서 전남도 내 1위를 달성하면서 ‘일하는 군정’으로 인정받고 있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에 64.9%의 집행률을 기록해 전남도내 1위를 차지했다.
재정집행 대상액 5천40억원 중 3천270억원을

집행해 민간 경기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민생과 밀접한 사업인 소비·투자 분야에 대해 집행 전망을 수시로 점검해 각종 물품 및 공사 대금 선지급, 연내 공사 마무리 등 지출을 극대화한 결과 목표액 대비 514억원을 초과 달성,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였다.
해남군은 2019년 예산현액 1조원 시대를 연 이래 매년 1조1천억~1조3천억원 규모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연말 기준 전체 예산의 84.8%를 계획대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집행율은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성한 성과로 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유일 5회 연속 최고 등급, 군단위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일하는 군정’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
해남군의 성과는 ‘경영행정’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선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집행을 위해

부서 자체 점검 회의와 주기적인 집행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부진 사업에 대한 사업별 관리와 대규모 투자사업의 공정별 추진 상황을 점검,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확충에 사활을 걸고 뛰어온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단 한푼의 예산도 그냥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경영행정의 체질개선 결

과 민선 7~8기 동안 국·도비는 2배, 공모 사업은 3배의 예산이 증가했다”며 “단순히 예산을 가져오는 것 뿐 아니라 계획한 사업을 촘촘히 행하는 등 행정력을 강화하면서 적재적소에 빠르게 예산이 투입돼 군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예산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목포시 가로수 보호판 설치 ‘예산 낭비’ 지적

보행 안전 개선 먼저…우선순위 논란 잡초 억제·미관 개선 효과 등도 미미 市 “뿌리 손상 방지·토양 보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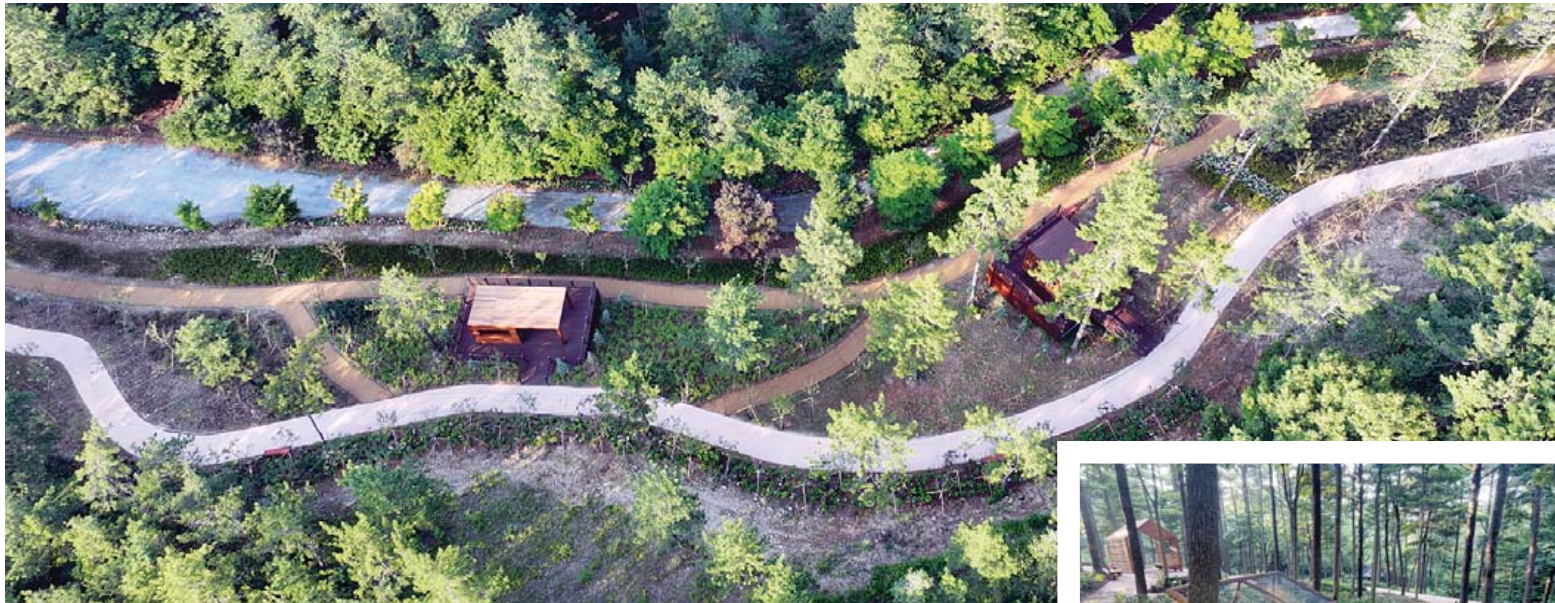
목포시가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돌레길 정비사업이 ‘과도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3일자) 가로수 보호판 설치 역시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용해동·연산동·상동 일원 등 3개 구역에 총 1억1천여만원의 도비를 투입해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했다. 올해에도 상동 일원에 약 2천800만원을 들여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보호판은 아자섬유로 제작돼 아자매트라고도 불리며 토양 유실 방지, 수분 유지, 미관 개선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민들의 보행 안전 문제



목포시가 지난해 용해동·연산동·상동 일원 등 3개 구역에 총 1억1천여만원의 도비를 투입해 설치한 가로수 보호판.

등 실제 필요한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미뤄지고 있다며 사업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의원들은 “잡초 억제와 미관 향상이 실제로 제감되지 않는다”며 “보호판 대신 화초 식재 등 주민 참여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도블럭이 들뜨거나 경계석이 뒤틀린 구간 정비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통행이 거의 없는 구간에 보호판을 설치한 데다 설치 후에도 틈새에 잡초가 자라 유지 관리가 오히려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도비지원으로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했으며 가로수 뿌리 보호와 토양 유실 방지 등의 기능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토양보호, 잡초억제, 수분유지, 친환경성, 간편한 시공 등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군 고금 덕암산에 조성된 생태공원 전경(위)과 탐방로에 설치된 해먹 벤치. <완도군 제공>

완도 ‘고금 덕암산 생태공원’ 1년 앞당겨 완공

20억 투입…탐방로·해먹 벤치 등 설치
완도군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고금 덕암산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6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전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 2년 만에 사업을 마쳤다.
사업 대상지는 고금면 청용리 산263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됐다.

공원에는 1km의 생태 탐방로와 그네 의자, 트리하우스, 해먹 벤치, 산림욕 의자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이용객이 곳곳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했다.
경관 조명과 보행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15대 규모의 주차장과 숲속 데크 무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또한 교목(배롱나무·서부해당화·이팝나무 외 5종) 276주, 관목(치자나무·꽃댕강 외 7종) 33천주, 조화류(수국·작약·백

문동·꽃무릇) 6만7천본이 식재돼 사계절 내내 꽃과 녹음을 감상할 수 있다.
완도군은 지난달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마을 이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생태공원 준공 현황과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고금 덕암산 생태공원이 방문객에게는 자연 속 쉼과 치유를 제공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진도 ‘다산안전대상’ 수상

道 종합 4위…4천500만원 확보

진도군은 “최근 전남도 주관 2025년 다산안전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다산안전대상은 도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한 기관, 단체, 개인, 시군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통해 상을 수여하며, 안전 분야에서 전남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진도군은 ▲안전문화운동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 평가 ▲재난예방사업 등 총 4개 분야에서 고른 평가를 받으며, 도내 22개 시·군 종합 4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진도군은 다산안전대상 수상에 따라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4천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안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마음으로,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진도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안전 관리 역량 우수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진도=박세권 기자



윤병태(왼쪽) 나주시장이 지난 3일 ‘여름철 폭염 대응 긴급 대책회의’에서 관련 실무반과 함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장기 폭염 대응 체계 본격 가동”

폭염 저감시설 실태·후속 대응 논의 무더위쉼터·그늘막·살수차 집중 투입

나주시가 장기화 되는 폭염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화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윤병태 나주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폭염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열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점검회의’의 연장선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 특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회의에서는 무더위쉼터, 그늘막, 살수차 등 폭염 저감시설의 운영 실태와 시설물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온열질환자 및 가족 폐사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부서별 후속 대응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나주시는 620개소의 무더위쉼터와 222개소의 그늘막을 운영 중이며 주요 시가지에는 살수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폭염 대응 물품을 배부하고 쉼터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 현장 체감 중심의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폭염이 가장 심한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농작업 자제 홍보를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수칙 지도와 점검을 병행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폭염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시는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각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에 집중해 달라”며 “시민들도 수분 섭취와 야외활동 자제 등 폭염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안전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김산 무안군수,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국회 방문…공립산림레포츠센터 등 건의

김산 무안군수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협력 강화에 나섰다.
6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김산 군수는 서삼석 국회의원 등을 만나 면담을 갖고, 군 주요국비 사업들의 필요성과 파급력 등을 적극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서남권 무안 공립산림레포츠센터(350억원) ▲무안 봉대산성 정밀 발굴조사(100억원) ▲몽탄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86억원) ▲무안군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459억원) 등이다.
또한 김 군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6차 TF’ 구성에 앞서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으로 완전 전



환, 공모방식 추진 등 무안군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김산 군수는 “무안군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와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강진군, ‘전남형 골목상권 사업’ 최종 선정

1억 투입…서문화관 일대 소상공인 지원

강진군은 “최근 전남도의 ‘2025년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강진읍 서문화관 일대 서문길 상권에 총 1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와 강진군이 각각 3천만원, 7천만원을 부담해 상인 조직화, 문화행사, 거리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비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목표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주민·관광객이 어울릴 수

있는 상생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상인회 조직 및 상점가 지정 ▲선진지 견학 ▲거리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가족형 축제와 소비촉진 행사 등이다.
강진군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기 위해 강진군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상권 경쟁력은 상인 조직화에서 시작된다”며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